

# 소규모자영업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만족도

## The Economic Outcomes in Small Self-Employed Business and the Job Satisfaction of Self-Employed Worker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 성 희\*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conomic outcomes of small self-employed business and the job satisfaction among self-employed workers.

A sample of 321 was selected from self-employed workers living in Daegu. For data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elf-employed workers' income was affected by their gender, age, perception of present economic status, and working years of business, and amount of capital at the beginning, as well as whether they hired other employees.
2. The factors that influence job satisfaction for self-employed workers were previous experience in self-employed business, level of positive vision with future household economy, level of income, length of working hours per day, and the level of empowerment with their self-employed work.

---

▲주요어(Key Words) : 자영업소득(self-employed workers' income), 세력화(empowerment with self-employed work), 자영업만족도(job satisfaction with self-employed work)

### 1.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 종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종사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자영업주가 6,043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694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관련 고용인구가 34.9%(한국노동연구원, 2004)에 달해, 자영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실업자들은 임금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이 어렵고 기업이 더 이상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없는 인력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사회로

본격적인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사회의 생산요소였던 노동력이나 자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정보가 중요한 경제활동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자본금이 적은 개인들도 제한된 노동력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영업의 창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차성란, 2001).

이와 같이 자영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자영업은 내부적으로 규모와 경영성과의 편차가 매우 크며, 결과적으로 종사자의 직업적 성공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집단은 고속런 기업가형 자영업주 및 전문직 자영업종사자와 저속런 생계형 자영업자가 혼재되어 집단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류재우·최효영, 1999).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들이 비교적 기술과 자본의 장벽이 낮아 진입이 용이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부문

\* 주 저 자 : 홍성희 (E-mail : hsh@kmu.ac.kr)

에 소자본으로 진출한 한편 정부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정책의 지원으로 기술력을 갖춘 벤처 기업가들이 창업하는 열기가 확산됨에 따라 자영업의 규모와 기술력, 업종 등에 현격한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의 개인 간 격차가 임금근로자 부문보다 더욱 심각하며 '소득'이나 '일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도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금재우 등, 2003) 것을 볼 때 자영업집단 내에서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으로서의 만족감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도 자영업의 여러 단계에 대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자의 증가 현상을 반영하듯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찾거나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류재우·최호영, 1999; 금재호·조준모, 2000; 김우영, 2000; 김우영, 2001) 자영업 생성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영업이 개인에게 취업대안으로서 소득원의 역할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영업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의 성장과정 뿐 아니라 성장과정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의 성장과정은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영업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순이익 등 경영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의 직업 특성과 경제적 성과에 대해 경험하는 주관적인 만족과 복지감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 지표는 대표적으로 자영업소득을, 비경제적 측면의 성과지표는 자영업으로부터 얻는 직업만족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는 자영업의 성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로서 의의를 갖으며,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는 직업특성과 직업적 성공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자영업소득과 직업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자영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접근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자영업소득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결과는 자영업을 선택하려는 개인에게는 어떤 특성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자영업이라는 취업대안을 선택하는데 보다 유리한가를 판단하며, 자영업소득을 극대화하고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상담 등을 담당하는 관련기관에서 창업자금지원정책이 자영업자의 직업안정과 소득효과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가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영업의 직업 특성과 경제적 성과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만족은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보상 및 비경제적 보상은 직업특성과 관련된다. 자영업의 직업적 특성은 임금근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Greenhaus & Callanan, 1994). 경제적인 면에서 일정한 수입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며, 사업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수입이 단절될 우려가 높다. 또한 사업실패의 결과 재산 상실의 위협을 받는 등 수입주기와 액수가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규모나 자영업자의 전문성 및 자질에 따라 수입액 및 안정성에 큰 편차가 있다.

한편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누릴 수 있다(Eden, 1975; Naughton, 1987). Chay (1993)와 Eden(1975)은 자영업의 매력의 공식적, 관료적 조직의 고용과 제약조건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고 할 만큼 독립성을 자영업의 큰 장점으로 들었으며, 이밖에도 의사결정의 자유, 책임감, 흥미로운 일의 도전 기회, 임금근로의 상하관계 탈피, 성취감 등이 자영업의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반면 자영업의 불리한 점으로는 과중한 업무부담, 근무일과 휴일의 구분 모호, 만성적 불확실성,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Jamal & Badawi, 1995).

이러한 자영업의 직업적 특성을 볼 때,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소득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은 가계 및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잠재적 구매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소득은 소득원천의 평가절상이나 절하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김태성, 1995을 김연정, 1998에서 재인용), 봉급소득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되는 것과 달리 자영업소득은 정확하지 않은 하향보고가 문제된다(Rander, 1982; Jenks, 1987). 또한 자영업가계는 기업재정과 가계제정을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의 소득이 그대로 가계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심한데, 영세한 자영업가계는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재무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영금, 2001). 그러나, 자영업 소득은 미시적으로는 자영업자의 개별가구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가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보고로서 금재호 등(2003)이 분석한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비임금근로자의 연평균매출액은 1억 617만원이었다. 이중 자영

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2,618만원인데 반해 고용주는 10배 수준인 2억 9,371만원에 이른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1998년에 133.3만원, 1999년에 128.5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은 1999년에 비해 약 26만원이 증가한데 반해, 고용주의 월평균소득은 약 100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즉,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주로 고용주의 소득 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 내부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금재호 등, 2003).

자영업의 내부적 이질성을 규명하기 위해 금재호·조준모(2000)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취업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반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영업자의 경우 인적자본에 대한 한계수익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영업자로 이직한 근로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득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고능력자군으로 파악되고, 신규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렵거나 유보임금이 높아 기대수준에 미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저능력자군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영업 노동시장이 저능력자군과 고능력자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의 격차도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자영업소득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되는 변화를 보이기 쉬우며, 자영업의 규모나 자영업자의 종사상의 지위, 인적자본특성 등에 따라 수익성과 소득의 격차가 심한 경향이 있다.

## 2. 자영업의 직업만족도

직업만족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러운 또는 바람직한 정서상의 태도로서(Locke, 1976), 직업만족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동기가 높으며,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만족도는 전체 생활만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직업에서 얻는 유익이나 만족은 직업 이외의 대부분의 활동에서 얻는 만족보다 높다는 Juster(1985)의 연구결과를 통해 직업이 개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의 직업만족도의 수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데, 우선 자영업의 직업만족도가 임금근로에 비해 높다는 견해가 있다. 자영업은 임금근로에 비해 자율성, 자아성취의 기회 등을 더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Eden, 1975; Naughton, 1987), 경제적 보상의 상당 부분이 경영주의 인성, 기술, 기업가정신, 근면함 등에 의해 결정된다(Noah, 1991). 시간적 융통성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Loscocco, 1997). 이와 같은 자영업의 직업특성으로 인해 많은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자신의 직업에 더 만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

히 Blanchflower & Oswald(1998), Blanchflower(1998)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인종,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자영업에 종사함으로써 오히려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직업만족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Borjas & Bronars, 1989; Moor 1983)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VandellHeuvel-Wooden(1997)은 기존연구들이 모든 자영업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실제로 자영업집단 내에는 전문직, 가족기업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 직업만족도의 격차를 클 수 있다. Jamal(1997)도 캐나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직업만족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캐나다의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해고, 시간제 근무직 증가, 만성적 직업 불안정성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준비나 동기 없이 자업을 선택한 결과 이들의 직업만족도가 저하되었다고 보았다. 김우영·김용규(2001)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였던 외환위기를 전후로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1998년에는 자영업주의 직업만족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자영업자의 상당 부분은 임금근로에서 밀려난 후 취업대안으로 자업을 선택한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영세성,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직업으로서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금재호 등(2003)의 한국노동패널 2001년 자료 분석 결과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낮았다. 그러나, 1998년과 비교했을 때 2001년의 경우 특히 '소득'과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라 만족도가 상승하였을 가능성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영업주들의 사회적,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들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는 본질적으로 근무시간, 안정성, 전망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며, 규모와 소득 등의 사업체 특성, 경기 변동과 같은 환경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자영업의 소득과 직업만족도의 영향요인

### 1) 자영업소득의 영향요인

많은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남성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순미·홍성희, 2000; Rowe et al., 1993; Heck et al., 1993). 김순미·홍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남성자영업자의 순수입이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총매출액에서 순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컸다. 이에 대해 여성자영업들의 주 직종이 도소매업, 수리업에 국한된 것에 비해 남성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수익성이 높

은 건설업, 운수, 통신,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정순희(2002)의 연구에서도 여성 가족기업주의 사업소득이 남성기업주에 비해 낮게 나타남으로써 여성 가족기업의 기업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보았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대별로 자영업소득을 비교한 성지미·안주엽(2003)의 연구에서는 40대와 비교할 때 30대보다 50대에서 저소득과 고소득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나, 고연령일수록 소득의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남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자영업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여성은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유의한 부적 효과가 있어 40대 남성에 비해 이들의 자영업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인적 자본으로서 자영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Heck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소득 대 가족기업소득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높은 교육수준이 전문성 및 기술을 갖추어 수익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성지미·안주엽(2003)의 분석에서도 교육연한이 남성과 여성자영업자의 소득에 각각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자녀수 및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성취업자의 역할갈등의 요인으로, 정순희(2002)의 연구에서는 6세 이하의 자녀의 존재가 사업소득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Heck(1992)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존재가 소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김순미·홍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가족기업의 순수입 대 총매출의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업원의 유무 및 수는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Heck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종업원수가 총수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안주엽(2003)의 분석에서는 피고용인이 없는 순수자영업과 비교할 때,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의 시간당 자영업소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용규모가 클수록 효과의 크기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순미·홍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순수입 대 총매출액의 비율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업원이 많은 경우 인건비의 지출이 많아 수익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Rowe(1993)는 기업소유주의 개인적 특성보다 경영년수와 같은 요인이 소득 창출에 더 영향력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지미·안주엽(2003)의 연구에서는 자영업 지속기간은 시간당 자영업소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자영업 지속기간의 소득증가효과가 연간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재호 등(2003)의 분석 결과에서도 자영업 지속년수가 1년 증가할 때 소득이 약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무시간으로는 사업에의 몰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Heck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이 가족기업의 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근무시간이 길수록 가계총소득 중 가족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다.

성지미·안주엽(2003)은 이전에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

을 때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 현재 자영업소득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이전 자영업 경험은 현재의 시간당 자영업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자의 사업전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래의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인지할수록 기업이 성공적인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고한 Heck et al(1993)의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전망과 자영업소득은 관련성을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집단의 내부적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자영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분포될 수 있으며 산업별 자영업소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미·홍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도소매, 숙박업 및 음식업의 순수입 대 매출액의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았다. 즉, 매출액이 동일할 경우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의 순수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적으며, 수익성이 낮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력화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는 정도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환경의 통제 정도, 상호관계의 정도, 일의 성과 및 조직에 의해 가치평가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정도를 통해 파악된다(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04). Grasmuck et al.(2000)의 연구에서 소규모자영업가계의 소득과 세력화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자영업의 선택 및 생존에 대한 선행연구(Bates, 1990; Blanchflower & Oswald, 1998)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본 제약으로 인해 자영업을 선택하지 못하며,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자영업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01)에서도 자영업자나 고용주들은 자영업의 창업 과정에서 '자금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자본금이 자영업의 선택과 성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본금이 자영업의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다룬 기존 연구결과는 없으나, Bates(1990), 금재호 등(2003)의 분석에서 창업 당시의 자본금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기간이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창업자본금은 자영업의 안정과 성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2) 직업만족도의 영향요인

가족기업주를 대상으로 한 홍경아(2002)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여성이 가정과 기업영역의 두 가지 기능 수행에 대해 이중역할부담을 갖기보다는 자영업의 직업적 자율성 및 시간의 융통성으로 인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가족기업 소유주와 유무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영선(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과 직업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Herzberg(1957)는 초기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후기에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U자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직업을 시작할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층의 경우는 직업에 대한 사기가 높아 직업만족도가 높지만, 고용기간이 길어지면서 권태, 기회 상실 등으로 인해 직업만족도가 저하되는데 30대 초반에 최저점을 이루며, 그 후에는 연령과 직업만족도는 비례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우영·김용규, 2001에서 재인용). 무급 가족기업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한 고선강(2004)은 Herzberg(1957)의 연구 결과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후기에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U자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육수준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홍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대졸 기혼여성에 비해 초, 중, 고 졸업자의 직업만족도가 더 낮았던 반면, 홍경아(2002)의 연구에서는 고졸에 비해 대졸 가족기업주의 직업만족도가 더 낮았다. 한편 성지미·안주엽(2003)은 성별과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남성자영업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영업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자영업 성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교육수준의 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기회가 많고, 여러 가지 보상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고, 부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자신의 교육수준에서 해야 할 일의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 직업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녀로 인한 가사노동의 부담과 직업노동 수행의 이중역할 갈등이 직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은 자영업의 안정성과 전망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기혼취업여성 전체의 직업만족도에는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자영업여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영업이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 경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주관적 인식이 자영업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은 규모 면에서 매우 편차가 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건과 환경이 좋아 근로자의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고선강(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의 수가 직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급종업원의 수가 많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원이 더 높은 직업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홍경아(2002)의 연구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가족기업주의 직

업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종업원이 많을수록 기업주의 인적관리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근무내용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 결과적으로 종사자의 직업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김우영과 김용규(2001)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과 이후인 1998년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5년에는 전기, 수도, 건설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보다 더 높은 소득만족도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 부동산,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금재호 등(2003)의 연구에서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와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은 도소매판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진입과 진출이 빈번하고, 경쟁이 심하므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금재호 등(2003)의 분석에서는 창업연도가 오래될수록, 즉 사업기간이 길수록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기간이 길다는 것은 사업이 안정적이거나 원하는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영업주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성지미·안주엽(2003)의 연구에서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수행하면서 세력화정도를 높게 인지한다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주도적으로 가지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결과적으로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시간은 직업만족도와 관련있는 주요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근무시간과 직업만족도는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미 1995; 홍성희, 2000). 또한 가족기업주를 대상으로 한 홍경아(2002)의 연구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선강(2004)의 연구에서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근무시간은 자영업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자영업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결과적으로 직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Loscocco, 1997) 한편 자영업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은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의 소득이나 매출액 같은 경제적 산출은 직업의 안정성과 생활에 기여함으로써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성란(2001)의 연구에서 소득은 가족기업주의 수입만족과 직업안정성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나타났으며, 성지미·안주엽(2003)의 분석에서도 자영업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영업소득 및 자영업만족도를 통해 자영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영업의 소득과 만족도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자영업의 소득 및 만족도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자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자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영업의 소득 및 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자영업소득 (log 값)	현 자영업의 월평균 순수입(만원)의 log 값
자영업 만족도	현 자영업의 소득,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 환경,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b>독립변수</b>	
<b>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b>	
성별	1=남      0=여
연령/연령 <sup>2</sup>	만 연령(세)/연령 <sup>2</sup>
교육수준	교육연수(년)
자영업경험	현 자영업 이전에 자영업에 종사했던 경험 1=유      0=무
자녀수	미혼 자녀수
<b>경제적 특성</b>	
가계경제인식	본인이 인식하는 현재 가계경제수준 1=하      5=상
가계경제전망	내년의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본인의 전망 1=매우 나빠질 것이다 5=매우 좋아질 것이다
<b>자영업특성</b>	
창업자본금 (log 값)	현 자영업 창업당시의 자본금총액(만원)의 log 값
산업	현 자영업의 해당산업 1=도소매, 음식숙박업      0=기타
사업기간	현 자영업을 운영한 총 기간(월)
종업원 유무	유급 종사자의 고용 유무 1=유      0=무
세력화	현 자영업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주도권의 소재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근무시간	평균 1일 근무시간(시간)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서 소규모자영업을 경영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인 대구광역시는 전국 6개 대도시 중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04년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중소기업청 산하 대구 북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조사기간 동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기혼여성 및 남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부를 실시하였고,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140명을 임의표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부부가 같이 자영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경영주인 여성 혹은 남성을 조사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성별과 연령별로 비슷한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완성된 설문지 총 440부 중에서 종업원 수, 월평균 매출액, 수입 등 사업규모면에서 지나치게 격차가 큰 극단치를 가진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또한 소득과 만족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창업한지 최소 3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로 범위를 좁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을 321명으로 확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PC SPSS program(ver. 10.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영업 실태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파악하였다. 자영업 소득과 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VIF 계수를 검토한 결과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43세이며 40대가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연수는 약 13년 정도이며, 고졸자가 37.4%, 대졸자가 35.5%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전에 다른 자영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20%로 조사대상자 중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자영업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65.1%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주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기간은 약 4년 9개월이며,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체가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체에 비해 약간 적었다.

창업 자본금은 약 7284만원이며, 자영업으로 인한 월평균 순수입은 약 300만원이었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재 가계경제의 수준은 2.60으로 중간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었으며, 내년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3.20으로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일에 대한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화 정도는 3.89로 중간수준인 3점을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영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융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만족도는 2.95로 중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균근무시간은 1일 9.6시간으로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1)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
<b>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b>		
성별		
남	153	47.7
여	168	52.3
연령		
30대 이하	118	36.8
40대	131	40.8
50대 이상	72	22.4
교육수준		
고졸미만	36	11.2
고졸	120	37.4
전문대졸	51	15.9
대졸이상	114	35.5
자영업경험		
유	67	20.9
무	254	79.1
<b>자영업 특성</b>		
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209	65.1
기타	111	34.6
사업기간		
1년 이하	65	20.3
2 - 3년	90	28.1
4 - 5년	69	21.6
6 - 9년	48	15.0
10년 이상	48	15.0
종업원 유무		
유	155	48.3
무	166	51.7
<b>연속형 변수</b>	<b>평균</b>	<b>표준편차</b>
<b>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b>		
연령	43.31	8.10
교육수준(년)	13.55	2.47
자녀수	1.57	.85
<b>경제적 특성</b>		
가계경제인식	2.60	.78
가계경제전망	3.20	.85
<b>자영업 특성</b>		
창업자본금(만원)	7284.49	12613.11
사업기간(월)	56.98	56.03
세력화	3.89	.53
근무시간	9.67	2.94
자영업소득(만원)	299.81	233.48
자영업만족도	2.95	.61

2. 자영업 성과의 전반적 경향

자영업의 성과로 나타나는 소득과 매출, 만족도의 경향은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단위 : 만원) (N=321)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백분위수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75%
월자영업 소득	300	233	1500	10	140	250	400
월평균 매출액	1753	2526	18000	50	300	1000	000
창업 자본금	7284	12613	200000	0	2450	5000	87000

<표 4> 자영업만족도 (N=321)

하위영역별 자영업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소득만족도	2.62	.88
근무시간 만족도	2.75	.82
근무내용 만족도	3.14	.76
근무환경 만족도	3.12	.77
발전가능성 만족도	3.14	.95

자영업을 창업할 당시 투자된 자본금의 총액 및 월평균 매출액과 순소득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보았을 때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영업의 업종과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수익성에도 편차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집단의 소득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 면에서 내부적 이질성이 크다는 선행연구(금재호·조준모, 2000; 금재호 등, 2003)의 견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자영업만족도의 하위 영역은 소득만족도, 근무시간만족도, 근무내용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 발전가능성 만족도로 구성되는데, 이 중 근무내용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즉, 자영업소득이 일정치 않고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자영업의 미래 사업전망과 직업을 통한 개인의 자아성취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영업만족도의 세부 경향은 금재호 등(2003)이 한국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 영역의 구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차성란(2001)의 연구에서도 자영업의 근무시간, 근무환경, 업무내용, 장래성, 안정성, 수입에 대한 만족도 중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3. 자영업 소득의 영향요인

자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자영업자 개인의 인적자본으로 볼 수 있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영업 경험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 자영업자의 소득이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순미·홍성희, 2000; 정순희, 2002; Rowe et al., 1993; Heck et al., 1993)에서 남성자영업자의 순수입이 여성자영업자보다 많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이 여성자영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산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수익률 또한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표 5> 자영업 소득의 영향요인 (N=321)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영업소득	
		B	$\beta$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	성별(여)	.231	.144**
	연령	8.202E-02	.814*
	연령 <sup>2</sup>	-1.1E-03	-.980**
	교육수준	1.378E-03	.004
	자영업경험(무)	1.422E-02	.007
	자녀수	5.909E-02	.063
경제적 특성	가계경제인식	.258	.253***
	가계경제전망	5.566E-02	.059
자영업 특성	창업자본금(log값)	.265	.333***
	사업기간	2.175E-03	.151**
	종업원유무(무)	.315	.197***
	산업(기타산업)	-.118	-.070
	근무시간	2.058E-02	.076
	세력화	.119	.078
	상수	-.201	
R <sup>2</sup> (Adj-R <sup>2</sup> )		.469(.444)	
F값		18.258***	

\* p < .05 \*\* p < .01 \*\*\* p < .001

자영업자의 연령이 자영업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소득이 증가하다가 정점을 이룬 후에는 연령 증가 따라 자영업소득이 감소하는 역 U자형을 보인다. 연령은 모든 변수 중에서도 자영업소득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영업자의 연령에 따른 소득의 편차가 그만큼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특성 중에서는 사업기간과 종업원유무, 창업자본금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이 길수록 자영

업소득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금재호 등(2003), Rowe(1983)가 사업기간이 자영업소득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한 견해와 일치한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의 소득이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Heck 등(1993)의 연구에서 종업원수가 총수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나, 성지미 등(2003)의 연구에서 종업원의 고용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자영업소득이 높아지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즉,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출 및 소득 등의 경제적 성과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업자본금은 자영업소득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본제약이 자영업의 선택과 창업에 영향을 미칠(Bates, 1990; Blanchflower & Oswald, 1998) 뿐 아니라, 창업 이후 자영업의 성장과정과 성공 정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영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객관적인 가계경제의 상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이 자영업소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자영업만족도의 영향요인

개인 및 가족특성, 경제적 특성, 자영업특성이 자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자영업 경험만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과거에 자영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없는 집단의 만족도가 자영업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즉, 이전에 임금근로직에 종사했다가 자영업을 선택했거나 최초의 직업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직업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적 특성인 가계경제인식과 내년의 가계경제전망이 모두 자영업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와 미래의 가계경제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자영업에 만족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이 경기변동 및 경기전망의 영향에 민감하며 취약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특성 중 근무시간은 부정적 효과를 보여, 근무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즉, 자영업의 근무시간이 임금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긴 문제점이 있는데(김우영·김용규, 2001), 본 연구에서 근무시간의 증가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홍성희, 2000; 차성란, 2001; 홍경아, 2002; 고선강, 2004)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세력화가 자영업만족도에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쳐 자영업에 대한 세력화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일에 대한 주도권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하여 일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소득은 자영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소득이 많을수록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자영업소득은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득이 가족기업주의 수입만족과 직업안정성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었던 차성관(2001)의 연구나 자영업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성지미·안주엽(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하위영역별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계속). 첫째, 소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영업자의 교육수준, 자영업경험, 가계경제인식과 경제전망, 총자본금, 자영업소득 등이었다.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아, 대출 가족기업주의 직업만족도가 고졸자에 비해 낮았던 홍경아(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영업경험이 없는 신규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유경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임금근로직에서 자영업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을 통해 소득증대효과를 보거나 최초 직업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신규자영업자도 기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망이 소득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영업소득 또한 정적 영향을 미쳐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인 경제수준 인식이 소득만족도에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무시간만족도를 낮게 인식하였으며, 자영업경험이 없는 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더

만족하였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수준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근무시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근무시간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평균근무시간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근무내용만족도는 자영업경험과 근무시간, 세력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자영업경험이 없는 신규자영업자가 현재 자영업의 근무내용에 더 만족하였으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자신의 자영업에 대한 세력화정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근무내용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근무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력화 뿐이었다. 세력화정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장의 위치, 규모, 시설 등 자영업의 근무환경을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발전가능성 만족도에는 자영업자의 성별이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자영업 발전가능성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보다는 성에 따른 자영업규모와 종사산업, 소득 등의 차이가 발전가능성 만족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가계경제수준은 발전가능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내년의 가계경제전망은 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소득과 세력화정도가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쳐, 자영업에 대한 세력화 인지가 앞으로의 사업전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6> 자영업 만족도의 영향요인

(N=321)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영업만족도	소득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근무내용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	발전가능성만족도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	성별(여)	.051	.040	.069	-.017	-.042	.121*
	연령	.376	.451	.230	.170	.489	.043
	연령 <sup>2</sup>	-.429	-.407	-.234	-.245	-.585	-.117
	교육수준	-.112	-.157**	-.125*	-.049	-.043	-.023
	자영업경험(무)	-.168**	-.172**	-.133*	-.128*	-.090	-.090
	자녀수	-.069	-.0800	-.013	-.068	-.044	-.040
경제적 특성	가계경제인식	.203***	.275***	.156**	.111	.107	.070
	가계경제전망	.207***	.161**	.156**	.067	.042	.296***
자영업 특성	창업자본금(log)	-.086	-.223***	-.033	-.032	.078	-.084
	사업기간	-.040	-.055	.049	-.044	0.24	-.102
	종업원유무(무)	.040	.032	-.056	.032	.061	.079
	산업(기타산업)	.070	.069	.087	-.009	.066	.049
	근무시간	-.217***	-.001	-.418***	-.183**	-.144	.093
	세력화	.229***	.087	.071	.279***	.271***	.150**
	자영업소득(log)	.158*	.352***	.053	.040	-.090	.186**
상수	1.115	-8.6E-02	2.425	1.747	.735	.705	
R <sup>2</sup> (Adj-R <sup>2</sup> )	.319(.283)	.298(.261)	.258(.219)	.196(.154)	.138(.093)	.308(.272)	
F값	8.963***	8.151***	6.662***	4.680***	3.066***	8.520***	

\* p < .05 \*\* p < .01 \*\*\* p < .001

## V. 요약 및 결론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종사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자영업 집단 내에서의 규모와 경영성과의 편차가 매우 크며,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에도 이질성이 커지고 있어 자영업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영업의 소득과 직업만족도는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자업을 선택한 이후 사업으로서 성장, 안정시키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영업소득 및 자영업만족도의 경향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자영업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근무내용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무환경만족도, 근무시간만족도, 수입만족도의 순이었다.

둘째, 자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경제적 특성 중 가계경제인식, 자영업 특성 중 창업자본금, 사업기간, 종업원유무 등 다양한 요인이 나타났다. 남성자영업자의 소득이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소득이 증가하였다가 후기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한편 자영업의 규모를 반영하는 창업자본금, 종업원 유무와 사업기간 등이 자영업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영업만족도의 영향요인은 개인적 특성 중 자영업경험, 경제적 특성인 가계경제인식과 가계경제전망, 자영업 특성 중 근무시간과 세력화, 자영업소득이었다. 과거에 자영업경험이 없는 자영업자, 즉 신규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유경험자에 비해 높았다. 한편 현재의 가계경제인식과 미래 가계경제전망이 모두 자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주관적인 경제인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시간은 자영업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자영업소득과 세력화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위영역별 자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영업경험이 소득 및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가계경제인식 및 가계경제전망도 소득 및 근무시간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력화는 근무내용, 근무환경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영업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성별과 연령 등 인적 자본을 대표하는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인적 자본 요인은 개인이 직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업무수행능력과 생산성으로 나타난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인적 자본 효과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종사산업, 자영업규모 등 자영업의 이질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의 규모를 대표하는 창업자본금, 종업원 유무, 사업기간이 영향요인으로 부각된 결과를 볼 때 자영업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소득수준도 안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업자본금은 자영업의 창업단계 뿐 아니라 성장과 안정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자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영업 경험 없는 무경험자의 자영업만족도가 유경험자에 비해 높다는 결과와 신규자영업들이 자영업소득 및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신규 자영업 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자영업에 안착하여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업을 처음 경험하면서 자영업의 직업특성 중 비금전적 보상 측면, 즉 직업의 자율성과 융통성 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길어 종사자들이 시간집약적인 일을 하는 반면 추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근무시간의 장단은 자영업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자영업만족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근무시간의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동시에 일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됨으로써 종사자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근무시간만족도 및 근무내용만족도에 근무시간이 부적 영향을 미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력화 역시 자영업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영업만족도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독립성, 일의 내용과 수행속도의 융통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등이 자영업자들에게 장점으로 인식되어, 소득 이외에 이러한 비경제적 측면의 보상이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력화는 근무내용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와 발전가능성 만족도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자율성과 융통성이 큰 자영업에서 일을 조직하고 인간관계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세력화는 자영업의 안정과 성공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보여진다.

자영업소득이 자영업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비경제적 보상인 직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득은 일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동시에 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자영업소득과 자영업만족도의 영향요인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자영업소득의 영향요인이었던 인적 자본 요인과 자영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특성이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영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자영업경험, 주관적인 가계경제전망, 근무시간과 세력화 등의 자영업 특성이 자영업만족도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영업소득과 자영업만족도는 모두 자영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척도이나 자영업소득은 경제적·객관적 척도로서, 자영업만족도는 비경제적·주관적 척도로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자영업만족도는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형성되는 과정과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자업을 선택하거나 지속하

려는 결정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자영업은 자율성과 융통성, 의사결정권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긴 근무시간이나 소득의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직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자영업을 선택하려는 개인은 이러한 장단점과 그에 따른 만족도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업자본금은 자영업 진입 시에 필요하나 소득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는 개인은 자본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본금 조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편 창업지원이나 금융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창업자에게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원 결과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 후 성과, 즉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과 매출, 소득 등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과 지원금 상환, 지원 및 상환의 조건 등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소득과 자영업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영업소득은 자영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한 지표이나, 후속연구에서는 소득 이외에 소득 대 매출의 비율, 시간당 소득, 종업원당 소득 등 비율지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규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이나, 세력화의 영향력을 볼 때 자영업의 비경제적 보상 측면이 이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한다면 자영업의 비경제적 보상 측면의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접수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3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03일

**【참 고 문 헌】**

고선강(2004). 가족기업의 무급가족종사원에 관한 연구: 일 관련 특성과 직업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43-59.

금재호(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금재호·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총**, 23(3), 81-107.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3).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

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 1-34.

김우영(2001).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24(2), 1-34.

김우영·김응규(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 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29-54.

김순미·김혜연(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이동의 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김순미·홍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7), 13-26.

김연정(1998).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정(2004). **재택가족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금재우·최효영(1999).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32.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척도집 2004**. 서울: 나눔의 집.

방하남(2000).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3, 133-154.

성지미·안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순희(2002). 가족기업의 성공관련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03-115.

정영금(2001). 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영실태진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21-136.

차성란(2001). 가족기업경영 가정의 직업 및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9), 121-135.

한국노동연구원(2004).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홍경아(2002). **가족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성희(2000).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특성과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43-156.

Bates, T.(1990).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

Blanchflower, D. & Oswald, A.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26-60.

Borjas, G. J. & Bronars, S. G.(1989). Consumer discrimination and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581-605.

Eden, D.(1975). Organizational membership vs. self-employed :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 53-67.

Evans, D. S. & Boyan J.(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 Grasmuck, S. & R. Espinal(2002). Market success of female autonomy. Income, ideology, and empowerment among microentrepreneurs in the Dominican Republic. *Gender & Society, April*, 231-255.
- Heck, R. K. Z., Stafford, K., Winter, M. & Hennon, C. B.(1993). Home-based business and family outcome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352-356.
- Jamal, M.(1997). Job stres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elf-employed and non-self-employed Canadia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 48-58.
- Jamal, M. & Badawi, J. A. (1995).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work and nonwork experiences of muslim immigrants: A study of a minority in the majority.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0*, 395-408.
- Loscocco, K. A.(1997). Work-family linkages among self-employed women and 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204-226.
- Naughton, E. S.(1987). Quality of working life and the self-employed manager.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 33-40.
- Rowe, B. R., Haynes, G. W. & Bentley, M. T.(1993). Economic outcomes in family-owned home-based business, *Family Business Review, 6(4)*, 383-396.
- Vandehurel, A. & M. Wooden(1997). Self-employed contractors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3*, 68-73.